

2025 새해 이렇게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적극 지원

김병내 남구청장

취·창업 등 청년정책 박차
백운광장, 지역 중심지로

예기치 못한 깊은 슬픔과 충격 속에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12·3 내란 사태에서 촉발된 탄핵정국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일련의 어려움을 딛고, 이제 우리 남구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2025년, 1% 초반의 경제성장률, 지속되는 수출 하락, 장기화된 내수 부진 등으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민생경제를 지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한 이차차액보전 등 경영 안정 지원과 골목형 상점



가 육성, 군분로·스트리트푸드존 토요 야시장 확대로 소비 활성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취업역량 강화, 구직 연계,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회적·마을기업, 협동조합 재정 지원과 제품 판매 촉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백운광장과 대촌·송암산단을 신성장 동력의 핵심 거점으로 확고히 하겠습니다.

한때 쇠락의 길을 걸던 백운광장은 지난해 푸른길브릿지와 미디어월, 스트리트푸드존이 들어서면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올해는 스트리트푸드존 인근에 스마트 공영주차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을 준공하고,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백운광장 일대를 지역의 중심지이자, 변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거점으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은 남구가 개칭한지 30주년이 되는 이립(而立)의 해입니다. 남구는 성장을 넘어 성숙한 도시로 더욱 발돋움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해 남구의 더 좋은 미래를 향해 지속적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정리=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역경제 활성화·주민 공동체 강화 총력

문인 북구청장

소상공인 자생력 키우기 앞장
기후위기 대응 생태도시 조성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새긴 새로운 희망과 다짐을 이룰 수 있는 뜻깊은 한 해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은 북구 대전환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에서 필수적이고 충분하며 품격있는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의 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27개 동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시대의 초석이 다져진 만큼 마을의제 실현 지원과 한단계 더 발전한 주민역량을 기초로 다 시한번 전국의 주민자치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가겠습니다.

6+6 육아휴직제 실시에 따라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해 기본돌봄이 이



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와 아이맘 택시비 지원 등 기본 의료·교통 정책을 통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로의 변화를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과감하고 신속한 현장 밀착 지원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광주 자치구 최초로 제정된 광주 북구사랑상품권

지역화폐를 정책적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발행해 기본적인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공동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AI 기반 소상공인 원스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수요맞춤형 지원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눈 앞에 다가온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생태 친화도시 조성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숨을길 4구간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고 침수 피해 예방 사업 6곳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추진해 항구적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재우는 북구'에서 '누리는 북구'로, 그리고 민생안정을 위한 '대전환의 길'을 구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하겠습니다.

북구민 여러분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현장생활 행진가로서 더 가까이 구민 여러분의 곁으로 다가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민생안정을 위한 대전환의 한 해를 준비하겠습니다.

/정리=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인문도시 동구' 6년 결실... '책정원'에서 만나보세요

청사 1층에 기록물 등 전시
올해의 책·생애출판 자서전도

광주시 동구가 지난 6년간 추진해 온 '인문도시 동구 사업'과 관련된 도서를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15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인문도시 동구 사업'과 관련된 도서를 구청 1층 책정원에서 전시한다.

〈사진〉

동구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인문도시' 조성을 목표로 주민 인문 활동 지원, 독서문화 진흥, 지역의 문화자원 기록 등 다양한 인문 사업을 펼쳐왔다.

지난해 7월에는 '인문도시 동구' 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인문도시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기도 했다는 것이 동구의 설명이다.

이번 전시는 이 같은 성과를 한눈에 책으로 볼 수 있는 자리다. 책 읽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책 읽는 동구' 사업과 관련한 '올해의 책' 10권이 전시돼 있다.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생애 출판 사업'을 통해 발간된 어르신 자서전 30여 권



도 만나볼 수 있다.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7년째 진행하고 있는 '동구 인문도시 기록화 사업'의 기록물도 전시된다.

'학동의 시간을 걷다'를 비롯한 동별 마을사 기록물과 함께 '동구의 인물', '충장로 오래된 가게' 등 우리 지역에 대한 다양한 기록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특별코너도 마련, 동구를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들도 비치했다. 옛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산수동과 계림동을 무대로 한 임철우 작가의 자전적 소설 '등대', 남광주역을 모티브로 한 박재구 작가의 '사평역에서' 등 동구를 배경으로 펼쳐진 다양한 시와 소설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행안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3가지 경영개선명령

공기업평가 최하위...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조직 재정비 등

정부가 광주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3가지 경영개선명령과 권고사항을 통보했다.

15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전국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전체 42개 기관 가운데 41위로 최하위를 받은 광주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지난 7월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라' 등급으로 낙제를 받아 행안부의 경영진단 대상 기관으로 지목돼 2개월가량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경영진

단을 받은 결과다. 행안부의 경영진단은 전반적인 운영 실태가 평가 범위를 벗어난 부실 공기업에 대상으로 실시한다.

행안부의 첫 번째 경영개선 명령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조직 재정비 및 운영체계 개선이다. 두 번째는 시설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관리계획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세 번째로는 효율적인 조직·인사 관리를 위한 성과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명령했다.

그동안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이 지적된 것이다.

주민들의 민원이 집중 발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의 경우 경기도 파주시 사례를 감안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5t 청소차량 보다는 2.5t 등의 소형 청소차량을 도입해 좁은 골목길 및 회전 교차로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마련토록 했다. 이 밖에 재무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자산관리 효율성 향상에 대한 문제점 등도 지적받았다.

재산관리 프로그램 및 회계시스템과의 이원화 및 재물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서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22일까지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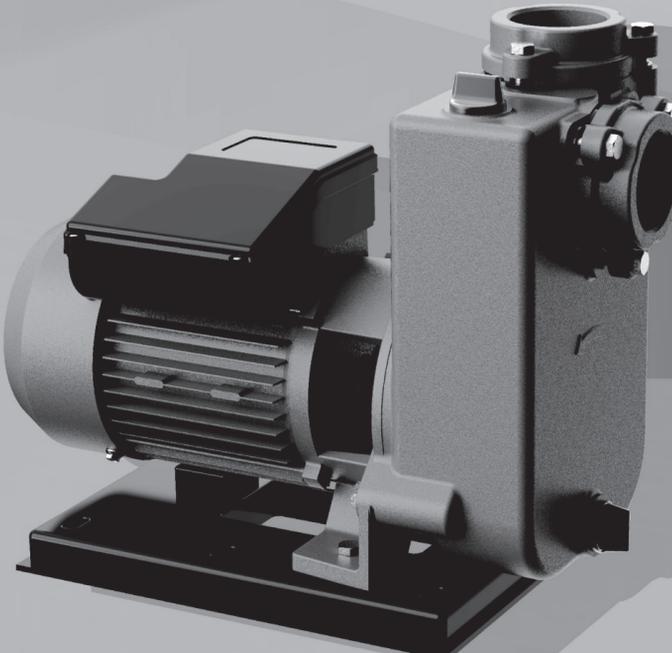
광주시 서구는 오는 22일까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

시민참여단은 여성의 시각을 반영한 정책 제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여성친화 공간 및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서구는 지난해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된 여성안심보안관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및 유포·확산 근절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해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참여는 여성친화,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서구 주민 누구나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11명 이내로 신청서를 작성해 서구 양성평등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민참여단은 각종 역량교육과 워크숍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활동 실비 지급,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정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유연재 기자 yjyou@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